

THE CHURCH IN TORONTO

열 두 광주리 아침부흥 제 1 주

그 영의 흐름

2007년 9월 17일 ~ 9월 29일

제 1 부: 성경 말씀과 찬송

찬송: 854, 384, -, 201, 203 (영 1198, 509, 983, 250, 251)

성경읽기: 에스겔 47:1-12, 고린도후서 1:21-22

◆ 에스겔 47:1-12

¹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 내리더라 ²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³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척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⁴ 다시 일천척을 척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척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⁵ 다시 일천척을 척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⁶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⁷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⁸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래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찌라 ⁹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 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¹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 글리암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¹¹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¹²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 고린도후서 1:21-22

21. 그러나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견고하게 붙이
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제 2 부: 계시와 진리를 위한 아침부흥

제 1 주 : 그 영의 흐름

☞ ☞ ☞ ☞ ☞ 월요일 & 화요일 ✨ ✨ ✨ ✨ ✨

아침 부흥을 위한 구절

📖 요한복음 7:38-39상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
니

39.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

📖 요한복음 16:12-14

12.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니라

1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그 영의 흐름은 오늘날 교회들 안에서 전진하고 있음

한 흐름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그 영의 흐름’ 이라고 부른
다. 모든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흐름이 방해 받지 않고 항상 전진하고 있
도록 보증하신다. 그 영의 흐름은 오늘날 교회들 안에서 전진하고 있다. 얼마
전에 나는 웨슬리의 메시지 편집본을 읽고 있었다. 나는 내가 그 영의 흐름이
오늘날 앞으로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만약
우리가 웨슬리를 되돌아 보고 조사해 보면,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일은
엄청나고 아마도 우리의 생활이 그와 같지 못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 영의 흐름은 오늘날 점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1. 흐름의 기본 원칙

여기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한다면, 우리는 그 영의 흐름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항상 우리의 과거에 집착하고, 우리가 중요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여긴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 영의 흐름을 갖지 못할 것이다. 16 세기에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은 좋았지만, 1950 년에 마틴 루터가 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중세시대에 마담 귀용으로서 충분했지만, 1950 년에 마담 귀용으로는 불충분하다. 18 세기에 웨슬리인 것은 좋았으나 1950 년에 웨슬리로는 부적당하다. 1828년에 다비가 되는 것은 좋았으나 1950 년에 다비가 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하나님은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도록 압력을 가하고 계시며, 모든 수단들이 교회를 위하여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 그 영의 흐름은 항상 앞을 향하고 있다.

2. 교회 안의 근본적인 취약점

여기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근본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서 그 영의 흐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 안에는 많은 영적인 것들을 가져다 주었던 많은 영적 거인들이 있어왔다. 오늘날 우리는 그 풍성함의 상속자들이다. 마틴 루터나 마담 귀용이나 존 벨슨 다비나 이반 로버츠와 펜 루이스 여사와 같은 성도들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부를 남겨주었다. 우리는 아무리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린다해도 이것에 충분치 않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마틴 루터나, 마담 귀용이나, 다비나, 로버츠, 혹은 펜 루이스 여사와 같이 되는 것을 이루어야 한다면, 우리는 중점—그 영의 흐름—을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여전히 실패할 수 있을 것이다. (워치만 니, 『열 두 광주리 가득히』, Vol. 1, pp. 7-8)

☞ ☞ ☞ ☞ ☞ **수요일 & 목요일** ✨ ✨ ✨ ✨ ✨

아침 부흥을 위한 구절

📖 창세기 2:10

10.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 계시록 22:1

1.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

좌로부터 나서

사도행전 1:8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8:4-5

- 4. 그 흠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 5.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우리는 전진해야 함 - 그 영의 흐름은 항상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

각 세대들은 어떤 흐름에 의해서 정해진다. 우리는 성경 전체의 흐름, 즉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흐름이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세대에서 세대로 전진적이라는 것을 계시하셨다.

한 홍콩의 형제가 한번은 나에게 히브리서의 중요성에 대하여 물었다. 나는 그에게 ‘사도행전과 히브리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사도행전은 전진적인 책이다. 우리가 8 장에 이르면, 다시 2 장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주님은 이미 사마리아로 가셨다. 우리가 만약 예루살렘으로 돌아 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땅끝에 이를 수 있겠는가? 주님이 계신 곳에 길이 있다. 성령이 로마로 가기를 갈망했고 성령이 땅끝에 가기를 갈망했다.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 첫발을 내딛는 것이었고, 땅끝으로 가기 위한 준비이기도 했다. 이방인들 가운데 사도들을 더하는 것은 옳고 전진적인 것이었다. 예루살렘에서 밖으로 나간 후에는 예루살렘에 있기 위한 갈망을 갖는 것조차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이방으로 보내진 사도들은 그들이 로마에 도착 할 때까지 계속 전진하였다.

히브리서는 두가지 신분-유대인 혹은 그리스도인-중 한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도행전은 이중 신분을 가진 사람들-유대인이고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다. 사도행전에는 성전의 기록이 있다.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한편으로는 성전을 찾아갔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여, 나는 당신께 내 자신을 헌신합니다.’라고 집회 가운데 기도하였다. 그들이 죄 지었다고 깨달았을 때 그들은 한편으로 제사장의 도움을 구하였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기도하였다.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시간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간을 나누어 생활했다. 두 가지의 화목 제물이 있었으며, 두 가지의 씻음과 두 가지의 속죄 제물이 있었다. 십자가가 있었으며 또한 동물-어린양이 있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로 되돌아가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는가, 아니면 유대인이 되겠는가?” 사도행전에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고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서에서는 두 가지가 동시에 될 수 없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오직 하나의 구속 양과 한 사람의 제사장 및 하나의 성전만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히브리서 10장은 우리들이 서로 함께 모이기를(25절) 포기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기를 멈춘다면, 더이상 속죄 제물이 없을 것이다(26절). 따라서 히브리서에 관해서는 오직 한가지 기본적인 생각만이 있다. 즉, 그것은 전진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그 영의 흐름은 항상 앞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영의 흐름이 언제나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여 진것들은 로마에서의 필요에 충분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가이사라에서 성취된 것은 오늘날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진이란 그 영의 전체 흐름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예루살렘의 존재만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디도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도록 허락하셨다. 이 땅에 교회가 건축된 이후에 하나님은 다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셨다. 예루살렘의 몰락은 화목 제물을 끝내버렸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을 것이지만, 더이상 양은 없다. 이것이 전진이다. 하나님은 첫째를 파괴하셨다. 사도행전에서 사람은 두 가지의 신분을 갖는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에 올때, 우리는 오직 하나만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명령이다-더이상 죄에 대하여 동물의 제물이 없다.

사도행전의 시대에 바울에게 여전히 서원이 있었다(18:18).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에 따라 특정한 시대에 어떤 사람을 계수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는 그 영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 그 영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 바울이 그의 머리를 자르고 자기 자신을 정결케하기 위하여 성전에만 것(21:26)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영의 흐름은 오직 그 단계에만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모든 유대 종교를 무너뜨린다. 히

브리서는 완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모세는 끝났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가르침과 그 영의 흐름 안에서 전진하시고 계신다. (同, pp.8-11)

☞ ☞ ☞ ☞ ☞ **금요일 & 토요일** ☞ ☞ ☞ ☞ ☞

아침 부흥을 위한 구절

📖 **에스겔 47:1**

1.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 내리더라

📖 **마가복음 16:14-15, 20**

14. 그 후에 열 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15.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20.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들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 **고린도후서 1:21-22**

21. 그러나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견고하게 붙이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니

22.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이천 년의 교회사 동안 하나님의 영은 항상 전진하고 있었음**

사도행전 28 장에서 조차도,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앞으로 전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절대 멈추지 않으셨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 만일 성령이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한다면 너무도 어리석은 것이다. 실제로 모든 시대에 하나님은 항상 어떤 사람들을 일으키셨다. 모든 시대에 교회는 전진해오고 있었다. 세대에서 세대로, 위로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 전진하고 있기까지 하며, 심지어 오늘날에도 그러하다.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걷는 자들만이 후사들로써 축복받는다. 미갈은 아이가 없었다(삼하 6:23), 하지만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는 아들을 낳았다(12:24). 후사는 성령의 노선의 연속이며, 이것이 내가 말하는 그영의 흐름이다. 우리는

우리의 부친들과 선조들로부터 모든 은혜를 상속받았으며, 그들에게서 영적인 유업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길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전진하는 길인가,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자를 통하여 움직이고 계신가? 이것인 내가 말하는 성령의 권위이다. 일단 우리가 실패하면, 성령은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그분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성령의 권위는 굴하지 않고 자라는 나무 동치와 같다. 그 영의 인치침이 어디에서 있든지 하나님의 길이 그곳에 있다.

만일 이 노선이 부서진다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발자취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교회를 연구해야 한다. 그와같은 발자취들은 역사와 교회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 마틴 루터를 되돌아 보면, 그에게 많은 약한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의 시대에 있어서 루터의 일은 그 영의 역사의 정점이었다. 우리는 오늘날 루터의 역사의 열매들이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노선을 다루기에 충분히 긴 인생을 갖고 있지 않다.

여러 시대들을 통하여 교회는 한 흐름의 디딤돌들과 같았다. 우리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게 한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길을 확고히하실 수 없다면, 그분은 발을 딛기 위한 다른 돌을 선택하실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해방되실 수 없다면, 우리는 엄청난 손실로 인하여 고통 받을 것이다. 성령의 인치심은 현재 어떤 곳에서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십년 후에 어떤 곳에서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말할 수 없다. 매일 매일 성령은 사람들을 지나시며, 무리마다 그들을 옆에 두신다. 사람 사람들은 그들의 유용함을 잃어버린 것 같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통로 위에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영이 우리를 통하여 아무것도 이룩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만 한다. 이 얼마나 확고한 일인가!

우리는 항상 적극적인 길위로 걸어야 한다. 지난 20 여 년간, 오스틴-스팍스(T. Austin-Sparks) 형제는 그 몸의 봉사에 관심을 가졌다. 어떤 이들이 이 문제를 130 년 전에 내 놓았지만, 아무도 이 길을 걷는 사람이 없었다. 어떤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그 진리의 길위를 실제로 걷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이러한 영적인 실재 그 자체가 나타나기 시작한 오스틴-스팍스 시대 이전까지는 아무도 없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몸의 봉사 안에서 완전하게 기능을 발하는 길을 택할 시기이다. 어떤 것이든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헌신되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 주의 회복은 또한 다른 영역에서 반영된다. 주께서 교회 안에서 움직이심을 갖게 되실때, 주님은 그에 따른 움직이심을 세상 가운데 만드신다. 우리는 섬김 가운데 몸 전체가 함께 상합되는 단계와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한 단계에 도달해야 한다. 교회 전체가 봉사할 때, 주님의 오심이 가까와 질 것이다. 그때에 가르침이 해방될 뿐만 아니라 성령 또한 해방될 것이다. 교회는 성령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인다. 성령이 움직이자마자 모두가 ‘아멘’하고 그분의 움직임에 답할 것이다. 성령은 우리에게 앞서서 움직이며 우리는 이 흐름 안에서 그분을 따라가고 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영의 느낌들은 그 영의 흐름과 함께 새롭게 되어야 한다. (同, pp. 11-13)

◆ 생명주는 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흘러나올 것임

1.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

에스겔 47장 1절상은,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 라고 한다. 물이 앞으로 흐르기 위해서 문지방이 있어야 하며,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한다. 이것은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접촉하고 그분께 가까이 간다면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주는 물이 흐르게할 출구가 있을 것이다.

2. 강은 동쪽으로 흐름

강은 집에서 나와 동쪽으로 흐른다(47:1). 동쪽은 주의 영광의 방향이다(민 2:3, 겔 43:2). 이것은 하나님의 강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을 나타낸다. 강의 흐름은 당신과 나를 많이 주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극히 주의한다.

교회생활 안에서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 만일 우리의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거기에는 생명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하지 않는다면, 그 흐름은 제한될 것이다. 교회 안에서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관심하여야 한다. 그러면 생명수가 교회로부터 흘러나올 것이다.

3. 강은 성전의 우편에서 흘러나옴

강은 좌편에서 흘러나오지 않고 우편에서 흘러나온다(47:1). 성경에 의하면 우편은 항상 가장 높은 위치이다. 이것은 주의 흐름에 탁월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우리는 주의 흐름에 최고의 지위를 드러야 한다. 우리는 주님 자신께 최고의 지위를 드러야 한다. 그럴 때 흐름은 뛰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인격과 일에 있어서 흐름이 우리를 통제하는 요인이 되어야 한다. 흐름이 탁월한 위치를 가져야 한다.

4. 강은 제단 옆면으로 흐름

만일 십자가의 다루심(제단에 의해 상징됨)이 없다면 강의 흐름은 방해받을 것이다. 강의 흐름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다루심이 필요하다. 흐름은 항상 제단의 옆면으로 흐르는데 이것은 흐름이 항상 십자가에 의한 것임을 상징한다(47:1). 만일 우리가 기꺼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서 흐름이 뛰어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 모두 흐름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기꺼이 십자가를 통과하자. (위트니스 리, 에스겔 라이프-스타디, 메시지 26(한 23), pp. 303-304)

◆ 추구 자료 ◆

1. 위치만 니, 「열 두 광주리」 제 1 권, ‘그 영의 흐름’

제 3 부: GTA 권속 교통

1. 교회 생활 안에서의 체험

◆ 가정과 교회 집회에서 그 영의 흐름의 체험의 예

...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온 후 무언가 우리 안에 생생하고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음을 증거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어 우리를 즐겁고 평안하고 안락하게 만드는 그 영이다. 이것은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사역에 의해 생명 공급으로서 우리 안으로 사역된 생명의 영이다.

당신이 이러한 방법으로 그 영을 체험하기 전에는 당신의 아내나 남편과 따지는 것이 매우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당신의 생명 공급이신 그 영을 체험한다면 당신이 따지려고 할 때 당신 안에 있는 무언가가 당신을 제한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자매가 그녀의 남편을 비난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지 모르지만 깊은 속에서 그녀는 그녀의 방으로 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러한 체험은 새 언약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 안으로 사역된 생명 공급이신 그 영으로부터 온다.

아마 교회 집회에서 생명 공급이신 그 영에 관하여 한 마디도 듣지 않았다면 당신은 당신 안으로 사역된 그 영에 대한 의식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에 관하여 한 마디도 듣지 않았다 할지라도 집회 안에서 그 영이 당신에게 사역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회복 안의 사역은 우리의 존재 안으로 생명 주는 영이신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을 새기는 것이다.

종종 교회 집회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의식이 없이 그 영의 공급을 받는다. 나는 집회 후 집으로 돌아갔을 때 많은 경우 무언가 기분이 다소 언짢았음을 간증할 수 있다. 그것은 마치 내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화가 난 것 같은 기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생생하다. 이것이 내가 집회 안에서 체험한 생명 주는 영이다. 우리가 화가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도 이 영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 돌이켜 『주여』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언짢음이나 화는 삼켜질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안으로 사역된 생명 주는 그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나는 교회 집회들에서 생명 주는 영의 공급을 받기 때문에 집회를 거의 빠지지 않는다. 어떤 집회에서 누가 말하든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갈망은 집회 안에 있는 것이요 공급을 받는 것이다. 특히 나는 아나하임 교회의 기도 집회를 누린다. 그러한 집회 동안에 나는 그 영으로 주입되고 적셔진다. 얼마 후에 모든 것들은 황금 빛으로 보이며 내 안에서는 생명의 나무가 자라고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친다. 메시지도 없고 심지어 격려의 말조차 없었는지라도 생명 주는 영은 내 안으로 공급되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러한 체험을 간증할 수 있을 것이다. (위트니스 리, 고린도후서 라이프-스타디, 메시지 27, pp.240-241)

2. 기도의 부담

1. 캠퍼스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대학생과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해의 부담은 캠퍼스에 복음을 확산하는 것입니다.
2. 9월 22일에 Joshua Lee 형제와 함께할 예정인 중국어 자매 집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집회를 통하여 자매들의 마음이 덤혀지고 온전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3. 아프리카 가나와 우간다에서 주님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Titus Chu 형제와 Vern Yoder 형제가 3 주간 이 두 곳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3. 소식 및 안내

집회 안내

- a. 주일집회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오전 10:00 ~ 10:30 - 주의 만찬
오전 10:30 ~ 11:00 - 친교 시간
오전 11:00 ~ 12:00 - 찬양, 찬송 및 말씀

청년 학생

- a. 대학생 및 청소년 집회가 금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각 가정의 자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과 성도 여러분들의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 부흥

- a. 아침부흥지가 9월 17일부터 열 두 광주리의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다. 앞으로 격주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기타 안내

a. 주일집회 후 애찬이 격주로 있습니다.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회 시간 및 집회소 안내】

Lord's Table	Hall 1,2 & 3	Sunday, 10:00 AM	Hall 1	671 Sheppard Ave. E, North York, ON M2K 1B6 (416) 221-7610
Young People	Hall 1	Friday, 7:00 PM	Hall 2	24 Cecil St. Toronto, ON M5T 1N2 (416) 977-5588
College Meeting	Hall 2	Friday, 7:00 PM	Hall 3	7 Gretna Ave, Toronto, ON
Grade 6 Meeting	Hall 1	Saturday, 7:00 PM	자매집회	매주 수요일, 오후 7:00 (한국어 자매 집회)
Prayer Meeting	Hall 1 & 3	Tuesday, 7:30 PM	소그룹	매주 토요일 오후 1:00시 (한국어 소그룹 집회: 토론토 & 미시사가)
	Hall 2	Tuesday, 7:00 PM	기도	매주 화요일, 저녁 7:00 (한국어 기도 집회)

(이 이침부흥지는 영어 이침 부흥지를 번역한 것입니다. 자료출처 표시는 영어 자료의 출처입니다.)